



- 외교부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에이팍코리아\_A-PAD KOREA)
- 이사장 고두환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대표이사
- 이 사 오현석 공인회계사, 정석운 법무법인 원 변호사, 성이혁수 외교부 사단법인 모먼트 이사, 김민지 사회적기업 (주)마인드디자인 대표이사  
오니시겐스케 에이팍(A-PAD) 총괄책임자, 이장우 피스원즈재팬 총괄실장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8층 에이팍코리아 • 전화번호. 02-779-8802
  - 대표메일 apadmktorea@gmail.com • 홈페이지 apadmktorea.org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padmktorea>
  - 후원계좌 기업은행 600-028234-04-023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





ASIA  
PACIFIC  
ALLIANCE  
FOR DISASTER MANAGEMENT

2012-2017

에어캵 방글라데시 긴급 구호 활동 중인 로힝야 난민촌 풍경

## 5TH ANNIVERSARY REPORT

# 아시아로 확장되는 연대의 힘



## 우리의 미션은

# 「국가와 조직을 넘어 언제든지 협력 가능한 재난 대응 플랫폼을 만드는 것」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재난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재난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NGO·언론 등이 언제든지 협력 가능한 재난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시아퍼시픽얼라이언스는(이하 에이팟 A-PAD)은, 아시아·태평양 내 국가들이 협력하여 재난 현장 긴급 구호·복구·방재·재난 이후 지역재생 등을 주로 다루는 아시아 대표적 국제기구입니다.

## 아시아의 전통적 가치「상부상조」를 실천합시다!



(사)에이팟코리아\_A-PAD KOREA 이사장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 고 두 환

안녕하십니까, 에이팟코리아 이사장을 맡게 된 고두환입니다.

(사)에이팟코리아는 에이팟 본부에서 출연·설립한 외교부 사단법인입니다.

(사)에이팟코리아는 에이팟에 가입한 6개국과 함께 국가와 조직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언제든지 협력가능한 재난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의 재난은 개별 국가로만 재해가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난 대응에 있어서, 국경을 넘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난 대응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기업·NGO·언론 등 민간이 주도하는 재난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세여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재난 대응의 길이 보이리라 판단됩니다. 최근 한반도 동남권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한국도 재난 안전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재난 취약지역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이제 에이팟코리아가 그 소중한 일에 첫 발걸음을 떼려 합니다. 우리 모두 재난대응에 있어서 아시아의 전통적 가치「상부상조」를 실천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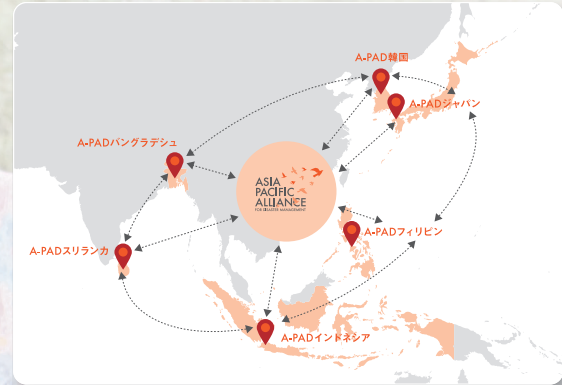


## OUR CHALLENGES

- 각 국가 간 NGO · 기업 · 정부 간 재난 대응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플랫폼 내에선 누구나 수혜자가 될 수도, 누구나 수혜자, 누구나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의 재난 대응과 재해 복구를 통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합니다.

## 에이팍 가맹 6개국 「연대의 힘」

에이팍 가맹국은 2017년 현재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까지 6개국으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NGO · 기업 · 정부 등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펼칩니다.



## 핵심가치 7개

에이팍이 가입국들과 공동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호 협력체로서 구현된 재난 대응 플랫폼



아시아퍼시픽얼라이언스  
(에이팍 A-PAD) 총괄책임자 오시니켄스케

안녕하십니까, 에이팍 총괄책임자 오니시 겐스케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재난 현장 및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재난 대응의 핵심은 기업 · 병원 ·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직을 넘어 연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각자의 자산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재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대응을 해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지난 5년 간 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국경과 조직을 넘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 재난대응 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재해 현장에는 “연대의 힘” 이 있다

- 현장을 잘 아는 각 국내 재난 대응 플랫폼이 원하는 지원 방식을 채택합니다.
- 재난 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에이팜 국가 간 협력 사업을 강화합니다.





## 에이팍 활동의 5년의 성과,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연대의 힘’으로 피해를 격감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으로 2012년 발족한 에이팍의 활동은 어언 5년이 되었습니다. 지진·태풍·홍수 등 여러 재난 현장에서 가맹국 간 협력하면서 긴급 구호와 재해 복구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각국의 재난 대응 플랫폼을 설립·운영하며 인재 육성, 〈아시아 재난 대응 국제 의원 연맹〉을 설립하는 등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대만
 각국의 상세 내용은 P9~11

 2017.2~4/스리랑카 가뭄

 2017.4~6/스리랑카 쓰레기 산 붕괴

 2016.2./대만 지진

 2017.5~7/ 스리랑카 콜롬보 홍수·토사 피해

다음 페이지로 

2017

 2016.4~9/

일본 구마모토 지진(상세 내용 8페이지)

 2017.5~6/방글라데시 사이클론 피해

 2017.7~9/필리핀 레이테섬 지진

 2015.10~2016.1/필리핀 태풍24호「곶뚜」

 2016.8~9/ 방글라데시 하천 범람·홍수

 2017.7/큐슈 북부 집중 호우

 2015.12~2016.1/필리핀 태풍27호 「멜로르」

 2017.9~11/네팔 동부 홍수

2016

 「아시아 재난 대응 국제 의원 연맹」 발족

2015

 〈UN 방재 회의〉에서 재난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축진이 주목 받음



### 국가와 섹터를 초월한 연대

〈아시아 재난 대응 국제 의원 연맹〉의 창설 준비와 각 국내 재난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상호 간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P6~8



# 재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 국가·조직을 넘어선 국제 회의를 주최

에이팍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재난이 발생 시, 각 국간 연대를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각 국내 재난 대응 플랫폼은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국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13회에 걸쳐 열린 국제회의에서 재난 대응과 인도적 지원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각 국 내 재난 대응 플랫폼은 각자 사정에 맞춰 발전했습니다. 스리랑카 기업 연계 플랫폼, 인도네시아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필리핀 긴급 구호 플랫폼, 방글라데시 의료 구호 플랫폼 등, 상호 간 선진사례를 공유하며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장을 통해 에이팍은 〈아시아 방재 장관급 회의〉와 〈아시아 재난 대응 국제 의원 연맹〉 등에서 그 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재난 대응 전문 인재의 육성

지진·쓰나미·태풍 등 재난 규모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 현장과 지원 사무국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재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에이팍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방재 장관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아세안 방재 인도 조정 센터(AHA 센터)와 정부 간 협력 프로그램(ACE 프로그램)」의 일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AHA센터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은 가맹 6개국 당 2명의 연수생들이 2주간 일본을 방문하여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 대응 및 재해 복구 시스템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연수는 아시아의 재난 대응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 간 사정에 맞추어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연수, 워크숍, 강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초국적 재난 대응을 위해 각국의 리더들이 나섭니다.

## ➤ 초국적 재난 대응을 위해 각국의 리더들이 나섭니다

재난 대응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방재 관련 법령을 다루는 입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016년 8월, 에이팟 가입국 중 일본에서는 시오자키 야스히코 중의회 의원과 코노타로 중의회 의원을 각각 대표와 사무국장으로 하는 「아시아 재난 대응 국제 의원 연맹」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아시아 재난 대응 국제 의원 포럼」을 개최, 스리랑카 방재 장관 및 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 23명의 리더가 한 자리에 모여 초국적 재난 대응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에이팟은 아시아 리더들과 함께 재난 대응의 초국적 협력이 역동적이며 섬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해 지역 내 국가와 조직을 넘어선 협력

### CASE 1.

#### 재난 발생 시에 각 국가 상호 협력 네팔 지진 시, 재난 대응 연계

(스리랑카 × 방글라데시 × 일본 × 한국 × 인도네시아)

2015년 4월 발생한 네팔 지진은 에이팟 설립 이후 발생한 아시아의 가장 큰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재난 발생 직후, 에이팟 본부는 일본에서 재난 대응팀을 파견하여 카트만두, 박타푸르, 신두팔촉(Sindhupalchowk) 지역에서 구조견 수색을 개시했습니다. 에이팟 방글라데시는 네팔 지진 피해자 5,000명의 긴급 의료 구호 사업을 진행했고, 에이팟 스리랑카에서는 구호지원 조정관을 네팔 지진 지역에 파견, 지진 피해자 85,000명에게 쌀, 식용유, 콩 소금 등의 물자를 배포했습니다. 에이팟코리아는 재해구호협회와 함께 네팔 지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원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CASE  
2.

## 재해 지역 재생을 위한 새로운 실험 구마모토 지진 이후, 재해 지역 재생을 위한 실험 전개 (한국 × 일본)

2017년 8월, 구마모토 지진 재해지역에서 한국·일본청년을 대상으로 「공정관광을 활용한 재해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당사자였던 일본 청년 7명, 2016년 경주 대지진 이후 재해 지역 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한 한국 청년 8명, 총 1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재해 지역에 공정관광을 접목하여 지역 재생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구마모토현 내 기업 및 NGO 직원들을 인터뷰 하고, 지역기반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조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후쿠오카 현 아사쿠라시에 방문하여 가옥 청소 및 진흙 제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참가 청년들은 프로젝트의 교훈을 바탕으로 출판사 월간도마토와 협력하여 도서를 출판할 예정입니다.



CASE  
3.

## 재해 지역 복구를 위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촉진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한국 × 방글라데시, 한국 × 필리핀, 한국 × 미얀마)

한국 글로벌 기업들은 에이팟 손잡고 아시아 재해 지역의 복구 및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2014년, 삼성물산은 에이팟 방글라데시와 함께 재해 지역 보건소 신축과 여성 및 영유아 대상 의료 서비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현대건설 역시 해당 지역에서 기초 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태풍피해가 많은 필리핀의 세부 지역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빗물을 이용한 음료여과 장치 설치와 재해 지역 주민 생활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미얀마 지역에 학교를 신축하고,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티셔츠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 가맹 6개국 내 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 현황

## 가맹 6개국 내 재난 대응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 【방글라데시】 의료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플랫폼

에이팍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내 30개의 의료 센터를 운영하는 「다카커뮤니티 병원(DCHTrust)」과 NGO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소사이어티(CIS)」가 재난 대응 플랫폼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 이외에도 식수 오염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긴급 의료 지원, 공장 노동 환경 조사를 통한 연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는 미얀마에서 유혈사태로 발생한 로힝야 난민을 수용한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재난 대응팀을 급파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긴급 의료 지원 및 식량 배포 등의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2017년, 에이팍 인도네시아 설립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발맞춰 도시가 팽창하면서 재난 피해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에이팍 인도네시아가 설립된 이후에 인도네시아 곳곳은 지진과 홍수 등의 재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팍 인도네시아는 국가 재난 대응 플랫폼인 <PLANAS>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재난 시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재난 시, 한 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한국】 재해 지역 복구와 지역재생을 위한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다각적인 노력

1961년, 한국 내 언론, 기업, 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재해구호협회. 에이팍코리아는 현재까지 재난 대응 플랫폼을 재해구호협회와 구축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들은 에이팍과 함께 아시아 재해 지역 복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에이팍코리아는 외교부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하여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 지원과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 지원 등 캠페인 및 모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본】「하늘을 나는 의사단」 발족**



2015년 11월, 에이팟 일본은 사가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과 2017년 북규수 호우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사가현 내 NPO 등과 플랫폼을 구축하여 긴급 지원 물자를 배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급파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에이팟 일본은 사가 시와 <재난 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재난 대응 위한 전용 항공기를 도입하여 사가대학교 의학과 플랫폼을 구축, 재난 발생 시 급파되는 에이팟 일본 구조팀과 사가대학교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하늘을 나는 의사단>을 발족합니다. 2017년 8월에는 일본의 대표적 포털회사인 야후재팬을 비롯한 민간 기업 17곳, NGO 5곳 등과 함께 재난 대응 플랫폼인 세마(SEMA)를 설립하고, 일본 국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해 지역에 필요한 긴급 물자가 실시간으로 전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필리핀】 섬 나라 특징이 고려된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플랫폼**

에이팟 필리핀은 1984년부터 필리핀 전역에 위치한 16개 단체와 재난 대응 활동을 이어가는 NGO 시민재해지원센터(CORC)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시켜 재해 지역 지원을 담당하는 필리핀재해회복기금(PDRF)가 중심이 되어 시작했습니다. 에이팟 필리핀은 7,000여 개가 넘는 섬에서 다양한 태풍, 홍수, 지진, 화산폭발 등 다양한 재난을 실시간을 겪는 필리핀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대응하고자 중앙과 지역, 기업과 NGO를 망라하는 플랫폼 구축을 광범위하고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NGO와 기업이 연대하여 구축한 플랫폼으로 에이팟 내 선구적 역할**



2004년 스리랑카를 강타한 쓰나미 이후, 재해 지역 복구를 위한 NGO간 플랫폼 구축이 이슈였던 스리랑카. 2013년 전국에 위치한 70개 NGO가 가입한 인도적 지원 플랫폼 CHA와 스리랑카 최대기업 카기루스사 등이 협력하여 계속되는 가뭄, 수해, 홍수, 산사태 등 재난 현장에서 긴급 지원 활동을 역동적으로 전개했습니다.

2014년 8월 설립된 에이팟 스리랑카는 에이팟 가맹국 중 NGO와 기업 연계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그 밖의 사례

에이팍은 신규 가맹 후보국을 방문해 국가 내 플랫폼 형성이 가능한지 조사 중입니다.

현재 가맹 후보국은 인도, 네팔, 미얀마,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대만 등 10개국 이상입니다. 재난이 잦은 지역은 당장 플랫폼 설립까지는 힘들더라도, 재난 발생 시 기민하게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의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Spotlight

#### 터키 수색 구조 전문단체 GEA와 협정 체결

2016년, 에이팍은 터키의 수색 구조 전문단체 GEA와 재난 대응 시 연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GEA는 UN의 국제 수색 구조 자문 그룹(INSARAG) 회원으로, 각국의 민간 소방단 훈련도 동시에 실시하는 단체입니다.

에이팍은 2016년 8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한 GEA 국제 훈련에 공동 참여하여 인명 구조, 구조건 수색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GEA와 협력하여 에이팍 스리랑카에 수색 구조 전문단체 결성을 진행 중입니다.



#### 대만 민간 소방단 철한대와의 협력

2015년 8월, 대형 태풍 13호가 대만을 직격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에이팍은 대만 의료 구조팀 노숙회 및 도원시의 민간 소방단 철한대와 협력하여, 구조팀과 구조건을 대만에 급파하고 도래지구에서 인명을 수색 중, 자택에 홀로 남아있던 남성을 안전한 곳으로 구출했습니다. 이후, 에이팍은 철한대의 리더를 에이팍 수색 구조팀의 리더로 임명, 헬리콥터에서 낙하 훈련과 재난 지역 수색, 구출 등 다방면의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수 의료기관과 연대 강화

재난 발생 후, 재해 지역에서 감염증 예방, 피해자 건강관리 등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에이팍은 다수 의료기관과 연대를 통해 감염증 확대 방지책 수립, 의료 전문 인력 긴급 출동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베트남에서 뇌염모기 감염증 사례, 시에라리온에서는 에볼라 출혈열 감염증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재난 현장에 긴급 의료 및 물자 지원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국경과 조직을 넘어 국제 의료 연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